

“광주 정신’ 중심으로 세계 연대, 공동체 아우르는 전시 기획”



이숙경 예술감독
©최옥수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이숙경 인터뷰

도시전체가 비엔날레 주인...관객 밀착 강조
전시 구상 위해 문화전당·양림동 등 방문
2023년 4월7일~7월9일 역대 최장 개최

“지구촌에 틀어박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내적인 관찰의 시간, 삶의 방식에 대해 각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 때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술이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질문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힘이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광주정신을 중심으로 놓고 공동체와 연대의 의미를 새기고 주변과 중심의 경계를 넘는 전시를 꾸려볼 생각입니다.”

지난해 12월 선임된 이숙경(54)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처음 광주를 찾았다. 지난 21일 광주에 도착, 오는 3월2일까지 머무는 이 감독은 전시 방향성과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봉동 본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예술공간 ‘집’ 등을 방문하며 리서치 작업을 진행했다.

코로나 전 연간 650만명이 찾은 영국 테이트 모던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중인 이 감독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3년 열리는 제 14회 광주비엔날레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예술가들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다. 이 감독은 전시를 통해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인종갈등, 원주민 주권운동 등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5년 제1회 비엔날레가 열릴 때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현장을 방문했죠. 미술관의 역할, 전시를 어떻게 기획하는가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규모의 전시와 젊은 작가들이 현장에서 작품을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큐레이터 역할을 키워가고 전문가로 커나가는 출발점이자, 분기점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백남준 작가를 만난 기억도 납니다.”

광주비엔날레와의 첫 인연을 소개한 이 감독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모두 미술 전문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전시를 통해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감독이 행사를 구상하며 중심에 둔 건 ‘광주정신’이다. 광주정신의 문화적, 사상적 뿌리와 현재적 의미를 찾고 ‘예향’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삼아 전시를 전개할 생각이다.

“개최지 광주와, 광주정신에 방점을 두고 지역성과 국제성, 비엔날레의 정체성, 동시대 미술의 역할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지역의 특수성에서 국제적 보편성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변과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관계의 전환과 평등한 연결을 논의의 핵심으로 삼으려 해요. 특히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변한 지구촌 상황에 조응하는 전시를 구상중입니다.”

차별과 불안정 등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현상들을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으로 보여줄 이 감독은 ‘행성적’이라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을 제안했다. 흔히 쓰는 국제적, 세계적이라는 말 속에 이미 주변과 중심의 개념이 녹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출발해 전 지구적 문제, 공동체 문제로 외연을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광주를 통해서 보고, 광주와 함께 탐구하며 전체 인류 공동체의 고민을 다양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이죠. 어찌보면 ‘광주정신’이라는 게 기존 비엔날레에서 인급대 신선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가 다르기 때문에 ‘광주정신’은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광주 문화의 깊은 탐구와 진정한 재해석이 급선무입니다.”

이 감독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중법적 사고의 변화도 꾀한다. “런던에서 일하며 개혁하고, 혁신시키고자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새롭고 평등한 관계 정립이었죠.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고, 높낮이가 없는 평등하고 고유한 특성을 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는 작가들의 리서치 작업과 제작 과정 등을 공개·공유, 전시의 여정을 나누는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구상중이며 전시 공간의 확장도 고민중이다.

“방문한 도시에서 전시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보는 것, 그게 비엔날레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세계 비엔날레를 다녀보면 새로운 곳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크더군요. 공간의 집중도와 동선 등을 고려해 전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작가와 기획자들의 면면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탐색 중입니다. 그런 게 바로 미술적·문화적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양림동이 매력적이더군요.”

영국에서 활동하며 관객 유입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 감독은 비엔날레의 관객과의 밀착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테이트 모던의 특별기획전 이외에도 미술관의 소장품을 보여주는 상설전을 책임지며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 전체가 비엔날레를 여는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엔날레를 포함한 전시는 결국 관람객을 위한 것이어야죠. 행사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편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시회에 갔는데 재밌더라, 질문이 생기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함께 나누며 작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작품을 꼭 안박하게 이해하지 않으려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각과 감성만으로도 즐길 수 있거든요. 체험의 다양성이 중요한 거죠.”

홍익대를 거쳐 영국 예식스대학에서 미술사&이론박사 학위를 받은 이 감독은 코플드 인스티튜트 박사과정 공동지도교수로 테이트 모던, 암스테르담 스테달릭 미술관에 등에서 열리는 ‘백남준 전(2019-2022)’을 기획했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참여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2023년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4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 감독은 4월계 주제발표, 9월초 1차 작가 리스트와 공간 확정, 내년 초 최종 작가리스트 공개 등을 예정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호랑이 복 받으세요”

김재춘 민화작가 초대전
3월2일~21일 은암미술관



‘호랑이’

‘호랑이해, 복을 부르는 민화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김재춘 대한민국 궁중화 명장이 광주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5월까지 이어지는 전국 순회전이다.

광주 초대전은 오는 3월2일부터 2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에서 열린다. ‘호랑이와 용 백마리, 궁중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호랑이와 용 100마리’, ‘책걸이’, ‘금강산’, ‘대호도’, ‘황호도’, ‘흑호도’ 등 8-10폭의 대작을 비롯해 민화 속의 주요 소재인 호랑이와 용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호랑이와 용의 모습, 다채로운 필법, 해학적 요소를 담아낸 스토리텔링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호랑이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다. 호랑이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신령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한국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다. 전시에서 만나는 호랑이 민화는 무섭고 위엄있는 호랑이부터 해학이 가득한 까지 호랑이까지 다채롭다. 용은 실재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신화나 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왔고 민간신앙의 대상이 돼 상서로운 마음을 전해왔다.

민화작가이자 한의사, 약사이며 미술학 석사, 보건학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김재춘 화백은 전통민화의 작업을 40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대 민화이카데미 지도교수, 경주대 문화재학과 특임교수로 후학을 키워냈다. 또 한국미술협회 민화 분과 초대위원장으로 민화 인구 저변화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코로나 전까지 부산과 광주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영호남 교류 민화전과 함께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교류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민화 작가들이 두터운 호남 지역 작가들과 경남 중진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은암미술관은 앞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 작가 작품을 초청, 교류를 정기화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은비 첼로 독주회

2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김은비(사진) 귀국 첼로 독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베토벤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의 마음’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사라사테 ‘지고이네르바이젠’, 쇼스타코비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작품번호 40’ 등이다.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의 마음’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이중창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의 마음’의 주제를 사용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7개의 변주곡으로 만든 작품이다.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대화하며 춤을 추는 듯 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지고이네르바이젠’은 파가니니 이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날린 사라사테가 스페인 집시들 사이에 전해지는 각종 무곡을 소재로 만든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전시 특유의 애수와 우울을 담고 있다. 마지막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작품번호 40’은 4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통적인 형식 안에 현대적 작곡 기법을 담은 것이 눈에 띈다.

김은비는 전남대 음대 졸업 후 미국 오라클호마대,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공부했다. 2019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이후 다양한 무대에 섰다. 이날 공연에는 건국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시 청년예술단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승훈이 함께한다. 전석 2만원. 문의 010-4301-1929.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서점 수 91개...5대 광역시 중 가장 적어

‘2022 한국서점편람’, 인구 100만명 당 서점 수는 두번째로 많아

광주가 5개 광역시 가운데 서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 문화거점 공간으로서 독자와 책이 만나는 현장서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22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광주는 2021년 현재 91개로 5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198개로 부산이 가장 서점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150개), 대전(118개), 인천(99개)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는 인구 100만명당 서점수는 62.76개로 두번째로 많았다.

또한 광주는 도서관 대비 서점 비중이 2021년 24.66%로, 16.2%를 기록한 인천 다음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가운데는 대전(29.7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27.83%), 부산(27.39%) 순이었다. 학교 수 대비 서점 비중도 광주가 14.51%로 10.30%를 기록한 인천 다음으로 낮았다. 대전(20.74%)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18.89%), 대구(18.40%)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전국의 서점 수는 2528개로 2년 전인 2019년(2320개)에 비해 208개 늘어났다. 이번 조사가 수록된 ‘한국서점편람’은 2년마다 발간되며 지난해 전국 서점은 지역서점, 독립서점, 대형 프랜차이즈서점, 대학구내서점 등 영업형태 구분 없이 지

역별로 집계해 수록했다.

2019년과 비교해 전국 서점 수가 소폭 상승한 것은 전수 조사 시 표본서점 수집 방법 등의 변경이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요인으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서점들이 개점한 것과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편화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지역서점 생존기반이 마련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서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래된 서점들이 폐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는 온라인서점 이용 증가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임대료 부담, 도서 물류 경쟁력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대형체인서점과 온라인서점의 매장 수는 2014년(65개)과 비교해 2021년에는 2배가 넘는 143개로 집계됐다.

한편 ‘2022 한국서점편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전국 서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수록돼 있다. 이번 편람은 오는 3월 2일부터 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네서점 ‘책과생활’